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제 1 독서 : 신명 8, 2-3  
14b-16a

제 2 독서 : I 고린10, 16-17

복 음 : 요한 6, 51-58

# 순정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 51)

## 강론

## 소리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김 태환 신부 / 효자동보좌

오늘은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다. 매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고 미사 때마다 성체를 받아 영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의미로는 매일, 그리고 매주일, 미사가 거행될 때마다 성체 축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매 미사 때마다 제대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만들어지고 있다.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음식으로, 당신의 피를 음료로 남기시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우리에게 받아 모실 수 있게 하였음을 받아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사 때마다 성찬의 전례 안에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얼마만큼 실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성체의 신비가 과연 믿는 우리에게 있어 실감나는 잔치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전례 시간을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은 사랑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의 전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사랑이다. 성찬의 신비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만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살고 있는 그 사랑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관념 속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잘 분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지 못한다면 한치도 그분의 사랑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성찬의 전례가 그리스도의 현존의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시간임을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 마음 아파하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소외받은 이들 등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그 가능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시작한다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웃 형제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나누인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있다.

우리가 오직 사랑을 시작할 때 성찬의 전례는 우리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다.

### 뜨거운 사람

사는 것도 신이 나고 성당일도 어깨춤이 절로 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사제관 수녀원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연이틀을 나가 보았다. 그곳엔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고 봉사자들의 헌신도 보기에 참 호뭇했다. 세 상사람들 모두가 저랬으면 싶었다.

더구나 그곳 본당 신부님의 뜻은 바자회로 얼마나 수익금이 들어오느냐보다는 이번일로 본당공동체가 더 결속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진정으로 나누게 되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왜 교회와 같은 자기헌신의 마음과 실천이 정치현실에서는 안되는 것일까? 어리석은 물음인 줄 알지만 다 같은 인간들의 모임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된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 심난하다.

우리나라에는 성직자 같은 정치지도자가 언제쯤 한 분 나오게 될지…….

난세는 인물을 내보내는 법이라는데 그것도 그렇지는 않은 것인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교회공동체가 제 노릇을 얼마나 해서 정치지도자를 훌륭한 분으로 한 분을 요구할 만한가 말이다. 순교 선조들이 몇 만명이 계신다 한들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 실천현장의 거름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면 무슨 도움이 되며 훈집될 건더기가 되겠는가.

요즘같은 풍요시대에도 소년소녀가장들이 있고 무의탁 노인에 장애인을 천대하는 온갖 구체적 범죄행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우리 신원이 부끄럽지 않다면 참으로 문제있는 교회다. 내가 곧 교회요, 네가 곧 나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가?

뜨거운 여름의 시작이 예수성심성월로 우리 안에 자리잡는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 순정이 산책



## 제44차 성체대회 - 무엇을 남겼는가?

1989년 제44차 세계 성체 대회를 주최했던 한국 천주교회의 가장 큰 염려는 '이 대회가 또 하나의 행사로 끝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위협을 막고, 의미있는 성체대회로 성공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다. 성체의 본 정신인 '나눔'과 '일치'를 생활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정의구현 사제단측 사제들은 이 성체대회를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는 분기점으로 삼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이러한 노력이 임진각 통일 염원미사 이며 때를 맞춘 문규현 신부의 '장충성당' 미사로 나타났다. 어쩌면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양의 도보 삼팔선 통과에 따른 감옥 살이도 이런 발상의 열매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일부, 소수 사제의 목소리로 일축되었고, 먼나라에서 온 친구 우리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끝내 옥중에 있는 목동과 양떼를 외면하셨다. 마음이야 찢기도록 아프셨겠지만 무슨 이유이신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으셨다. 바로 그 때 호화 찬란한 파티장이 아닌 굳게 닫힌 구치소 창살 앞에 그분의 인자하신 모습이 나타나셨더라면 분단과 분열, 미움과 증오의 상징인 군사 분계선 철망 위에 평화를 갈망하는 용루(龍淚)가 뿌려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그러셨더라면 지금쯤 불의의 감옥문도 한(恨)

의 철망도 녹아 부서지지 않았을까! 얼마전 서품식장에 뿌려진 우리의 목자 이 병호(빈첸시오) 주교님의 눈물이 문규현 신부에 대한 우리끼리의 깊은 견해 차이의 골을 매꾸었듯이 말이다. 만약 그러했더라면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는 진정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대회로 우리 민족들 가슴에 영원히 살아 남았을 것이다. 또한 '성체'는 믿는이들에게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나 일치와 화해의 표징으로 우리 역사 안에 영원히 기억 되었으리라.

그래도 비교적 이 성체 대회의 의미를 전달해준 사건은 한 마음 한 몸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성체'는 구원에 관한 하나의 상징이 아닌 구체적인 구원임을 느끼게 해 주었다. 빵이 되신 예수님은 실제로 눈민자들의 새 빛이시며 배고픈 자들의 밥이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버림받은 아이들의 안식이요, 피난처임을 알게하여 주었다. 예수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구원자이셨던 것이다. 허나, 이 대회가 끝난지 이제 불과 9개월! 이 땅에 무엇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고 걱정했던 '교세 과시 대회'로 끝나 버리지는 않았는가? '성체대회-이는 결코 한 번의 행사이어서는 안된다'라고 외쳤던 지난 날의 다짐은 오늘도 유효한 것이다.

## '영성체 하는 사람의 의무'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받아 먹기만 하고 그냥 있으라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혁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가 되고, 사랑을 먹고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체를 영하고도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지 못한다면 비료를 주고 주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의 저주를 받기에 알맞습니다.

성찬례 중의 놀라운 변화란 빵이 성체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입니다. 「베 문한 신부/성체 성사와 크리스찬 혁명에서」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영하는 성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아들 하느님의 살덩이' 입을 믿는다. 사랑의 살 덩이인 것이다. 즉 하느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바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변화한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이다. 어떻게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의 방법은 명확하다. 그분이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분이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성체'는 무의미한 것이다. '성체'는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가게하는 요술의 신약이 아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체롭게 하므로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억압된 사람을 해방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랑 덩어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귀한 '사랑 덩어리'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돼지에게 진주가 무의미 하듯이..... 영성체를 하는 사람은 성체의 삶-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천자문·사자소화  
사군자·전 각  
**명륜서예한문학원**

원장 선 기 정 (요셉)  
☎ 82-6492

벗들을 찾습니다  
**전북시레지오중동문화회**

☎ : 1990. 6. 21(목)  
오후 7시 30분  
☞ : 익산 용안 천주교회  
연락처 : 전주 77-4488

■ 축 개 원 ■  
**여왕미용실**

신대동 백이점  
신규점  
■ 여왕미용실 ■  
※교우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에쁜선물 증정  
김 아네스  
☎ 87-9244

도시 감각의 패션구두  
**브랑누아**

김 순 희 (미카엘라)  
전주지점 (오거리)  
☎ 6-5043

잡 관 /

모두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와는 달리 평화통일은 결코 불가능 한 것처럼 믿어 왔습니다. 아니 교묘하게 그렇게 믿도록 왜곡 당해 왔습니다. 통일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하기 보다는 쳐들어 오는 공산군을 막아야 하고 오랑캐 무찌르기에 신명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소명이라고 철도 들기 전부터 배워왔습니다. 분단을 도구 삼아 정권 안보에만 눈이 어두운 교활한 인사들에게 철저히 속아 온것이죠. 자! 이제 눈을 떠야겠습니다. 통일은 가능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로 세상이 다 알고 있었던 독일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통일은 결코 어떤 정치적 술수나 외교적 교섭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통일은 온 국민이 진정으로 한 민족, 한 겨레아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증명해주었습니다.

한 반도 통일!

이는 우리 모두가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갈 때, 그리하여 어떤 반 통일 세력도 어찌 할 수 없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은총의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모여 기도 합시다. 서로 만나 통일의 큰 뜻을 뜨겁게 나누어 봅시다. 오천년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우리의 역사-6·25, 그 40주기를 맞아 다시는 그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기도의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모두 모여 주십시오.

문규현 신부, 임수경양 재판보고 대회 및 통일염원 기도회

일 시 : 1990. 6. 25(월) 오후7시30분  
 장 소 : 전주 중앙천주교회  
 주 레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와 전주교구 사제단  
 주 관 :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교 구 소 식

1. 축! 견진 : 복자 17일 10시30분
2.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 : 6월 26일~29일 송광 제2야영장(26일 오후2시 야영장 집결)
3. 중·고 교리교사 하계연수 : 일시-1990년 6월30일~7월3일 장소-송광 제2야영장 내용-캠핑이론 및 실기, 하기 교리교재 강의 레크리에이션
4. 각 본당 홍보분과 위원 연수 : 6월17일(10시-오후5시) 가톨릭센터, 대상-본당 홍보부장 및 차장, 홍보위원 준비물-필기, 미사도구 참가비-1인당 3,000원 문의-교구청 홍보국
5. 동정성모회 메리워드 성소자 모임 : 일시-6월17일 오후2시 장소-이리성모의원
6.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피정 안내 : 6월24일 9시30분-17시 광주본원(062)571-3004
7.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자 모임 : 6월24일 오후2시-6시 장소-전주교구청내 평화신문사(2층) 신청 및 문의 : 광주살레시오 수도회 성소담당수사(전화 : 062-55-0332)
8. 노틀담 수녀원 성소모임 : 6월24일 오전10시-오후5시 연락처 : 403-050 인천시 북구 계산동 산40 전화 : (032)522-6318
9. 한국 외방선교회 성소자 모임 : 24일 오후2시-5시 광주시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10. 여성제32차 꾸르실로 신청마감 : 6월26일까지
11. 축 영명! : 21일(알로이시오) 이태주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하천 오염의 한 몫 -

상수원에서의 차량세척행위는 이기적인 행락풍토에서 비롯됩니다. 심각해진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서로 협력합시다.

기름·연탄·가스보일러 판매·시공·상담

남양열기사

박 전 대건 안드레아 레지나

☎ 4-0006

전주시 서노송동 흥국생명빌딩

장수 양어장 직판

★항 어★

(회 <포> 떠드림)

매장 : 전주농협슈퍼 내

유탐수 (토 마)

박진희 (살비아)

☎ 87-8118~9

황현숙 피아노 과외교습소

사범대음대졸업(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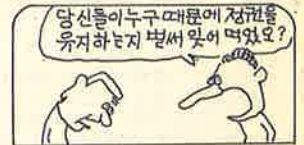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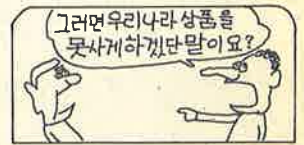
음대대학원재학

(국교생, 중고생, 대학입시생지도)

황 현 숙 (세시리아)

☎ 84-5694

고심이 (880) 김병오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수녀님, 교형자매 여러분 저희 본당기금마련 바자회에 몸과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고 봉사하며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머리천주교회

시목회장오 직환, 주임신부조정오

全州畫廊

한국화·양화·고서화매매  
 병풍·액자·수예(전시표구전문)

한 택 현 (마르첼리노)

위치 : 도정윤 백번집 앞

☎ 85-2220

주식회사

현대주방전주전시장

영양음 종합주방기구 전문제작

품질보증

하 설 균 (요섭)

북전주 전한국 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140-1

☎ 74-6357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발한지를 따라서...

성지순례전문회사

(주) 삼희관광전주지점

위치 : 전주전신전한국 영

전화 : 87-5532 (대)

담당 : 황 찬 규 (아오스님)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송남

- ※ **축!** 첫영성체어린이 82명 축하합니다. - 공식미사후 축하식.
1. 미사시간 일부 변경: 19일부터 화요일 새벽미사 없음.
  2. 오아네스 수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습오시는 수련자 김요한제자 수녀님 환영합니다.
  3. **본당 비품 및 시설정리:** 24일 공식미사후. <사목회 임원은 작업복 차림>.
  4. **부녀회 단합대회:** 21일 진안정천당터 8시30분 출발<미사준비>. 5. **모임:** 부녀회월례회-19일 어머니미사후, 동진반남회-19일 오후8시, 노송남회장대, 성령기도회-21일 오후7시30
  6. **금주청소구역:** 중노2가2, 3번 다음주 중노2가5, 6번.
  7. **대학병원봉사의 날:** 22일 9시30분 원하시는 분 시간 업수.
  8. **성함은인구함:** 대-450,000원 소-350,000원
- ☐ **지난주 봉헌금:** 838,280원 ☐ **교무금:** 475,000원

##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건진:** 오늘 공식미사.
  2. **성서교리:** 19일 화요일 저녁8시(매주 화요일).
  3. **가정방분:** 19일-진3반 20일-진4반 21일-진5반 22일-태6반 26, 27일-태1반 28, 29일-태2반
  4. **부녀회:** 21일 오전10시. 5. **성우회, 오순회:** 24일 공식미사후.
  6. **삼회:** 24일 오후2시. 7. **회집단회:** 24일 저녁미사후.
  8.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수련회:** 26~29일 송광사 2야영장.
  9. **중·고등부 교사 하계수련회:** 30~7월3일 송광사 2야영장.
- 금주전례:** 해설-윤귀자 ①유대식 ②노부영  
봉헌-유대식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황선주 ①정승훈 ②유경희  
봉헌-정승훈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546,150원 ☐ **교무금:** 940,50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충석

- ※ **오늘은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1. **축 영명:** 본당 신부님(세자요한), 축하식-다음주 공식미사후.
  2.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3. **탈삼미사:** 18일(내일) 원색장-정테레사씨 자매.
  4. **성경읽기:** 사무엘 하 13장~24장.
  5. **금주전례:** 해설-김경계 독서①양주태 ②장영미  
봉헌-이명수, 하원봉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여정진 ②이춘봉  
봉헌-유순천, 박귀철씨 부부
  6. **청년회, 성가정회:** 공식미사후.
- ☐ **지난주 봉헌금:** 202,430원 ☐ **교무금:** 109,00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예수성심성혈)
1. **회의:** ①성모회-오늘공식미사후. ②푸리아-다음주일 오후2시.
  2. **알림:** ①건진성사-6월24일 공식미사중(10시30분). ②본당진신자 특강-6월18일(월)~23일(토)(특강에 빠지는 분은 건진 받을 수없음)시간-저녁8시. 시간을 꼭 좀 지켜주세요. ③건진자 고백성사: 23일(토). ④9월기도-6월23일까지 시간-저녁8시. ⑤가정방분-6월20일(수)12만~13만. ⑥초등부교사 연수회-26일~29일, 중고등부교사-6월30일~7월3일. ⑦낙시대회-17일 오전8시 집합, 장소-윤암대교 건너편(육정호).
- \* **시상과, 참가자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주일헌금-정성어린 봉헌을 바랍니다.**
- ☐ **지난주 봉헌금:** 559,370원 ☐ **교무금:** 310,000원

##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111 사목회장 오직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오늘은 그리스도성체와 성혈대축일 \* 주일금배가운동에 적극 협조바람.**
1. **레지아:** 오늘 오후2시. 2. **주일학교 첫영성체교리:** 18일~7월 7일 매일 오후5시 \* 대상: 국교3년이상 \* 첫영성체식: 7월8일 3시미사. 3. **그동안 수고해주신 임안젤라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4.24~6.16).**
  4. **성화회:** 18일(월) 오후7시. 5. **성도회:** 20일(수) 오전11시.
  6. **성마리아구리아:** 다음주 오후2시 7. **울드레아:** 다음주 공식미사후.
  8. **새로영세하신 젊은이 환영식:** 21일(목) 저녁7시(꼭 참석 바람).
- ☐ **지난주 봉헌금:** 1,292,790원  
\* **금주모수비헌금액:** 280,000 \* **현재모금총액:** 140,629,159  
\* **금주모수비신입액:** 없음. \* **현재신입총액:** 213,231,399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 **신앙쇄신 특별강론:** 박종민(가브리엘)형제님. \* **첫영성체교리:** 대상-국교생3학년이상, 접수-사무실, 일시-19일~22일. 7월3일~20일까지(시간-오후4시~5시30분). \* **풍물(농악)팀 모집:** 접수-사무실 \* **공고란 참조.**
1. **성도회:** 공식미사후. 2. **청년회:** 저녁미사후. 3. **구역형제회 일정:** 21일(목) 오후8시-19만, 8시30분-22만, 9시-23만. 22일(금) 오후8시-양생, 우음, 마을광소. 4. **울드레아:** 다음주 공식미사후.
  5. **푸리아:** 다음주일 오후3시. 6. **성령기도회 모임 발족:** 회장-문정숙(로사) 부회장-은희영(마리아) 총무-이태라사. \*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7. **금주전례:** 문지규 복사-강상근, 차동주 봉헌-신영배 부부. **차주전례:** 박연희 복사-김광학, 정재서 봉헌-이정분 부부 ☐ **신축헌금:** 85,000원
- ☐ **지난주 봉헌금:** 470,710원 ☐ **교무금:** 537,000원

##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가정방분에 협조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2. **미사시간 안내:** 화, 수, 목-오후8시, 금-오전10시, 토-오후3시(주일학교), 오후8시(특전미사, 중, 고생, 일반).
  3.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신분순, 이숙희  
**차주전례:** 해설-한병강 독서-이봉수, 허정애
- ☐ **지난주 봉헌금:** 116,940원 ☐ **교무금:** 122,000원

## \* 효자동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1. **첫 영성체(새영세자포함) 축하합니다.**
  2. **모니카, 테레사회:** 수요일 10시30분.
  3. **꼬미씨움:** 23일 오후3시.
  4. **성서교실:** 수요일 오후2시, 7시.
  5. **청소담당:** 세경서편, 2차2단지, 화성APT.
  6. **진단체 마을을 위한 2차헌금에 협조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 403,720원 7. **예수성심 대축일(22일).**
  8. **효자월보 원고** 두고 바랍니다.
  9. **구역미사:** 개시관 참조.
- ☐ **지난주 봉헌금:** 825,920원 ☐ **교무금:** 787,000원

##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사무실 86-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87-0711 사목회장 김홍두

1. **사목회:** 저녁미사후. 2. **새벽회:** 공식미사후.
  3. **반회장 기도회 준비모임:** 22(금) 어머니미사후. 4. **상개리 공소미사:** 22(금) 오후8:30
  5. **유아세례:** 23(토) 오후2:00. 6. **견진교리:** 26(화)~30(토) 매일 저녁미사후.
  7. **반회장 단합대회:** 19(화) 오전9:00.
  8. **24시간 지속성체조배:** 6. 21(목)-22(금) 10:00(별참 시간표 참조).
- 차주모임:** 푸리아, 돌담회, 나눔의 헌금.  
**금주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송제진 ②한정례 기도-김재희, 김귀주  
**차주전례:** 해설-강신상 독서①조홍준 ②문경자 기도-박명래, 이영자.
- ☐ **지난주 봉헌금:** 608,790원 ☐ **교무금:** 602,000원